

주택연금, 자식 눈치 보느라…

생활비가 너너하지 못해 늘 궁핍하게 살고 있는 김명선(가명·70·광주시 남구 진월동)씨 부부는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을 받고 싶지만 자녀들 눈치를 보느라 어려지도 저려지도 못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집을 맡기면 생활 일정과의 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솔깃해 주택연금 신청을 하려다가 아들(42)의 반대로 일단 뜻을 접었다.

김씨가 자신 소유의 114㎡ 아파트(시가 1억5천만원)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면 사망시까지 매달 5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아들한테 약간의 응돈을 받고 있지만 부족해 주택연금을 이용하려고 했다”며 “내 집이라는 하자만 자신의 눈치를 안 볼수가 없어 차마 신청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노후생활비 도움 주는 제도 불구 이용 저조

1년 6개월간 광주·전남 33건 3억여원 불과

역모기지론 형태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14일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택연금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광주·전남 지역 이용 현황을 보면 총 33건에 누적 지급액은 3억1천200만원에 불과했다.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은 77세, 평균 주택가격은 9천400만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 38만원씩을 수령하고 있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부모의 재산을 부모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의 잘못된 재산관 때문이란 지적이다.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정진자 사장은 “자녀들은 부모 집을 언젠가는 물려 받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모도 자식 눈치보느라 쉽게 결정을 못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특히 한번 계약한 금액이 시세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즘처럼 주택가격 하락기에 이용을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지사장은 “이미 가입했다면 향후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반영해 지급액을 줄이지 않아 이로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경유값도 1,200원대 ‘코앞’

LPG 판매가 인터넷 공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곧 리터(ℓ)당 1천2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현재 전국 평균 경유 주유소가격은 전날보다 ℓ 당 9.01원이 떨어진 1천325.41원을 기록하는 등 국제 휘발유 값 급락으로 가격인하에 가속도가 붙으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유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1천2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제 경유가격 하락으로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들이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 공급가격을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휘발유 주유소 평균 소비자가격도 13일 현재 전날보다 ℓ 당 9.01원이 떨어진 1천325.41원을 기록하는 등 국제 휘발유 값 급락으로 가격인하에 가속도가 붙으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유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1천2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충전소별 차량용 액화석유 가스(LPG) 판매가격도 오는 22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석유공사는 13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22일부터 LPG충전소별로 판매가격을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전국 1천500여 개 충전소 가운데 현재까지 600여 개 충전소

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며 22일까지 1천여개 충전소가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LPG 판매가격은 1개월 단위로 조정되고 충전소간 가격차이도 크지 않아 오피넷 공개에 따른 가격경쟁 유도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공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운영한 오피넷은 현재 전국 1만200여개 주유소로부터 고급휘발유와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등 5가지 석유제품의 일일 가격을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이 영암군 F 업체로 주행세 119억 원이다. 개인 가운데서는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김모씨가 종합소득 세할 주민세 등 5억 원을 청납했다.

시·군별로는 여수 15명, 순천 11명, 목포 7명, 화순 5명, 광양·해남·영암 각 2명, 고흥·무안·함평·장성 각 1명 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개된 상위 10 위권의 청납자들은 건설·건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이 대부분”이라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등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윤영기자 redplane@

지방세 1억 이상 상습 체납

광주·전남 114명 명단 공개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고액·상습체납자 114명의 명단이 15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광주의 경우 개인 34명, 법인 32곳으로 총 체납액수는 179억 원에 이른다. 또 전남에선 개인 22명, 법인 26곳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총 체납액수는 254

억 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체납자의 이름이나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체납 요지 등을 홈페이지와 계시판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광주시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올해 처음 공개된 D건축업체로 취득세 1건에 15억6천200만 원, 개인의 경우 1건에 15억 원 이상 상당이며 총 체납액수는 179억 원에 이른다. 또 전남에선 개인 22명, 법인 26곳의 명

단이 공개됐으며 총 체납액수는 254억 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체납자의 이름이나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체납 요지 등을 홈페이지와 계시판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개된 상위 10

기아차 ‘혼류생산’ 전공장 확대

광주공장 이어 소하리 공장도 카니발·프라이드 교차생산 들어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카렌스와 쏘울 생산라인이 지난 9월 혼류생산에 들어간데 이어 이달 1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카니발 생산라인이 프라이드와 혼류생산을 시작하는 등 노사간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노력이 결실을 빚고 있다.

기아차는 이달 2천500대의 프라이드를 1공장 카니발 라인에서 혼류생산으로써 2공장에서 생산하는 프라이드 1만3천200대에 18.9%가 더 해진 월간 1만5천700대의 프라이드를 생산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소하리 1공장을 RV·소형승용·대형승용 등 세 차종 혼류생산체계로 개편, 라인간 물량 균형을 맞추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 ‘쏘울’ 새해맞이 푸짐한 선물

고객 참여 우수 캘린더·새해 소망 댓글 경품 등 제공

기아차는 큐멤버스 웹사이트(www.qmembers.com)에서 신개념 CUV 쏘울(SOUL) 고객들의 새해맞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사진〉 기아차는 내년 1월 16일까지 원하는 이미지를 구성해 고객이 원하는 캘린더를 만들

고, 우수한 캘린더를 선정해 다양 한 경품을 제공하는 ‘쏘울 투온과 함께하는 2009 캘린더 UCC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아차는 고객들이 제작한 캘린더 중 우수작을 선정해 유류상품권 100만원(1명), 아이팟터치(3

명), 앰피온 하이패스(5명), 쏘울 캘린더 노트(75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아차는 큐멤버스 사이트에서 투온 캘린더 UCC이벤트와 함께 ‘2009 기축년 새해 소망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큐멤버스 사이트 이벤트에 내년의 소망과 계획을 댓글로 남긴 고객 들 중 30명을 선정해 디지털 액자(5명)와 2009 쏘울 캘린더 노트(25명)를 선물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11월 지역 어음부도율 0.12%P 상승

광주·전남지역의 11월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상승했다.

1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44%로 전월(0.32%)보다 0.12% 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부도율 상승에 대해 한은은 “광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도금액은 감소했으나 어음교

환액이 크게 줄면서 부도율이 상승했고 전남은 순천이 제조업 및 건설업 중심으로 부도율이 상승(0.44%)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전남의 11월 신규 부도업 체수는 20개로 전달(17개)보다 3개 증가했고 신설 법인수는 211개로 전달(267개)보다 56개가 감소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경매투자상담/권리분석
수익성분석
금융, 세무상담



인베스트 경매컨설팅

문/의/전/화
062)236-09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5-10 2층 (법원정문 앞)

전문법률 상담

변호사 나봉수

직원 모집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남/여)

▶아파트

소재지	면적	층	면적비	갑정가	최저가	비고
본관동 현진애비움	7층	59	3억2천	2억2400만		
농성동 증축	7층	31	9천300만	5천510만		
우미	9층	20	4천500만	3천150만		
회관동 아현면세상	16층	67	4억8000만	3억4300만		
마곡동 서강	12층	18	4천700만	3천250만		
증평동 고이문동	3층	50	1억7000만	1억1900만		
문화동 리동동	2층	42	1억4000만	9천800만		
성동동 현대	5층	24	8000만	6천600만		
주체동 경남	11층	24	7천500만	5천250만		
풀림동 동부신트리움	17층	53	2억6500만	1억950만		
봉산동 한화디밸리	1층	39	4억1000만	2억4700만		
백운동 대화문구기	9층	33	9천600만	6천720만		

▶오피스텔/대세대

소재지	대/건	갑정가	최저가	비고
차평동	8.8	5500만	3850만	수린7호
차평동	47.4	3억3000만	1억480만	로진타운2층
차평동	11.6	8000만	4480만	구현드림빌 4층
차평동	9.1	4300만	2400만	제일13층
차평동	25.6	1억4300만	8000만	그린빌4층

▶오피스텔

소재지	면적/전(㎡)	갑정가	최저가	비고
차평동	439/222			